



**美, 중국산 플라스틱백 덤핑판정 결정**  
오는 16일 발표 예정

연방정부는 미 플라스틱 백 제조업체들에 의해 제조된 중국산과 아시아 국가들 제품에 대한 덤핑 여부 판정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이번달 16일로 연기했다.

미 상무부는 지난해 11월 26일에 중국, 말레이시아, 태국산 등 이 제품에 대한 덤핑 예비 판정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담당 부서는 어느 정도의 관세를 부과할 것인지 대한 세부 내용 발표를 오는 16일로 연기할 것을 발표했다. 상무부 대변인에 따르면 이 건의 매우 복잡한 사안이 이렇게 연기되는 경우는 흔한 일 이라고

밝혔다.

이 제품을 수출하는 중국 생산업자와 미국의 수입업자의 변호사에 따르면, 상무성이 조사한 덤핑 조사 건의 99%가 덤핑 판정을 받았으며 플라스틱 백에 대한 덤핑 관세가 부과될 것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으며 문제는 덤핑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몇 퍼센트의 관세를 부과하느냐에 있다.

중국 업체 변호사인 William Perry씨에 따르면 중국 제조업체들은 10% 이하의 관세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 정부는 중국산 플라스틱 백이 미국 시장에서 덤핑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다는 증거를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플라스틱 백 적정 생산 가격을 중국에서 생산 원가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인



디아에서 생산되는 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덤핑 판정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에 미국 제조업체들의 변호사인 Jones 씨는 약 10% 이상의 관세가 부과되길 희망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며 최소한 중국산 제품에 10% 이상의 관세가 부과되어야 미국 생산 업체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오는 16일에 내려질 결정은 최종 결정은 아니며 미 상무부는 중국산 제품에 대해 덤핑 판정을 하고 최종적으로 중국 현지 공장을 방문하는 등의 실사를 한 다음 다시 미국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에 보내져 최종적으로 관세율과 같은 세부사항이 정해지게 된다.

미국의 많은 플라스틱 백 생산업체들은 중국산 시장 잠식으로 인해 피해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게 됐고 그 동안 중국산 제품에 밀려 미국 시장에서 거의 자취를 감췄던 한국산 제품의 새로운 도약이 예상되고 있어 한국 업체들의 적극적인 마케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말렌社, 신소재 식품포장지 공급**  
연 매출액 신장 기대

소비재 중심 회사인 말레이시아 UPA사가 환경 친화적인 패키지 상품을 새로 선보였다. 이번 신상품으로 UPA사는 내년 RM 1천5백만에서 RM 2천만에 달하는 연매출액 신장을 기

대하고 있다. 이번 출시된 신소재 상품은 식료품 포장 및 타 공업상품 포장에 적합한 새로운 폴리에스테르 상품으로 Seri Kembangan에 위치한 새 공장에서 오는 11월부터 제조에 들어갈 예정이다.

UPA사는 50:50 마케팅 전략을 내세워 출시될 신제품을 내수시장 뿐 아니라 중국, 홍콩, 일본, 싱가포르 등지의 국외로 50% 이상 수출할 계획이다. UPA사의 2002년 수출액은 RM 2천5백만이었으며 2003년 RM 3천만 수출액을 목표로 하고 있다.

30여년 전에 창립된 UPA사는 1992년 세컨드 보드에 처음 상장된 후 최근 메인보드로 업그레이드 돼, 장당 1링깃의 보통주 6백12억7천8백만에 이르는 모든 발행주와 불입자본을 메인보드로 이전시켰다. 주식가격은 기준가격인 RM 1.36보다 장당 RM 0.03이 높은 RM 1.39에 시작됐고, 13만1천3백장의 주식 거래 속에 1.45 링깃에 마감됐다.

**유럽 PVC업체, 판매가 하락 고전**  
고기능 폴리머 가격 유지

PVC 가격이 하락하고 원부자재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 유럽의 주요 PVC 생산업체들의 지난 3/4분기 중 영업 손실액이 크게 늘어나고 매출액도 감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Solvay, EVC, Tessenderlo와 같은 유럽의 주요 PVC 생산업체들에 따르면 PVC 가격은 지난해 5월과 6월 중에 큰 폭으로 떨어졌다



가, 8, 9월 들어서부터는 다소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3/4분기 기준으로 전년동기대비 19%나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들 업체 중 특히 Solvay의 영업이익 감소 폭이 큰 것은 'Specialty Polymers' 부문이 통신, 전자산업의 수요가 크게 감소하고, 'Fluorinated Polymer'가 유로화 강세로 매출액이 다소 떨어진데 기인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Solvay사의 마케팅 관계자들은 'Elastomers'와 일부 고성능 폴리머(High-performance)의 경우는 가격도 큰 변동이 없고, 판매량도 지속적으로 늘어난다고 전제하고, 자사 매출액 감소의 주요 원인은 'Speciality Polymer'에 있다고 밝혔다.

Processing Sector에서 Solvay사는 3/4분기 중에 전년 동기와 같은 매출액을 기록했으나 금년 1~9월 기간을 놓고 볼 때는 매출액이 19%나 감소했으며, Inergy Automotive System은 미국과 유럽 자동차 메이커에 대한 판매가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시장의 호황으로 매출액이 증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산업용 필름과 파이프 및 피팅류도 전 세계적인 수요 감소로 인해 매출액이 감소했으나, 파이프와 피팅류 부문에 대한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필름의 경우는 라미네이트와 테크니컬 필름 등과 같이 제품의 기능을 개선함으로써 어느 정도 매출액이 크게 떨어지는 것을 막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시장여건으로 인해 Solvay의 2003년도 1~9월 중 총 매출액은 전년동기보다 5% 감소한 58억6천5백만 유로에 그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영업 이익은 2003년도 3억8천6백만 유로에서 금년도에는 2억9천7백만 유로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VC의 경우는 PVC 가격의 하락으로 2003년도 3/4분기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9%한 2억4천80만유로를 기록했으나 생산비용과 운영비를 각각 8%와 35% 줄여, 같은 기간 중에 영업 손실을 전년도의 6백40만유로 수준으로 유지함으로써 1~9월 중 영업실적은 전년도의 2백50만유로의 흑자에서 금년도에는 10만유로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日, 가공식품 원료원산지 표시의견대립

소비자 친성, 생산자 반대

일본 농수성은 가공식품의 원료원산지 표시에 대해서 소비자 및 식품업계 등이 보내온 의견을 정리, 발표했는데 소비자들과 생산자들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조사결과 소비자들은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룬 반면, 업계 단체들은 '복수국가의 원료를 사용하고 있어 표시 코스트가 높아진다' '원산지보다 가공기술, 원료품종이 더 중요하다'는 점 등을 들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결과 소비자들은 정보공시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메이커들은 이로 인한 부담



증가를 우려하고 있어 농수성이 앞으로 어떻게 양자를 절충해야 될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다만 동성은 원료원산지 표시와 관련, 건조한 농축수산물 등은 의무화한다는 입장으로 그외에도 두부 및 낫토, 팥, 녹차, 야채 과실음료, 찹떡, 곤나쿠 등도 의무화 대상으로 추가하는데도 긍정적인 입장이다.

농수성은 앞으로 '식품 표시에 관한 후생성-농수성 공동회의'를 개최해 늦어도 올해 여름까지는 의무화 대상품목을 정식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생산자측의 부담완화 문제도 의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져 최종적인 표시방식과 시기가 주목되고 있다.

**中, 지립성 식품가공기계 시장 유망**  
농산물 생산 현대화 추구

중국 지립성 농업위원회가 오는 2010년 까지 농산물 가공 분야에 적극 투자할 계획이어서 국내 식품가공기계 및 부품 판매업체의 판로로 떠오를 전망이다.

지립성은 농산물 가공 분야에서 매년 18% 이상의 증가세를 유지하여 2010년에는 RMB 2천억 위안을 목표로 30개 주요 기업과 1백개 대형 프로젝트에 적극 투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립성은 농산물 생산 현대화를 추구하면서 옥수수 및 콩 가공제품, 육가공 제품, 바이오식

품 등 3대 분야를 중점 육성할 계획이다. 옥수수 가공 분야는 옥수수 전분, 주정, 사료 등 가공 식품을 포함하며 콩 가공 분야는 핵산, 인지질, 콩가루, 두유 등 가공 식품을 포함한다.

육가공 제품은 양, 거위, 닭, 소, 돼지 등을 주로 가공하는데, 육가공 제품 가공 능력을 연간 70만톤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바이오 식품은 장백산 생태 환경을 바탕으로 인삼, 머루, 산나물, 산개구리, 광천수 등 식용 자원을 활용한 가공 식품을 포함한다.

지립성은 2010년까지 장백산을 중심으로 8백만톤의 바이오 식품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中, ISO 14020 계열 기준 적용시달**  
광고법 규정 적용 처분

중국정부는 지난 해 11월 30일부터 국제표준화 기구가 제정한 「ISO 14020 계열 기준」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국환경표지인증위원회」는 앞으로 소비자들을 쉽게 오해시키는 8가지 단어, 즉 무오염, 녹색, 환경 안정, 환경 우호, 자연의 벗 등의 단어 사용을 금지하며 만약 기업에서 이런 금지 단어를 사용할 경우 「광고법」의 해당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중국정부는 ISO 14020 요구에 따라 이미 실시한 3가지 환경표시의 인증 규범과 3가지 표시 양식 및 사용 범위에 대해서도 새로운 규정을 마련했다. □